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엇이 문제인가?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
하 규 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창업이 국가적인 아젠다(Agenda)로 중시되고 있고, 각국이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 성장의 기반을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활성화가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 기조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학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88억 원의 예산이 배정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과 기업이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 mismatch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사업도 산학협력과 창업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창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등 중앙기관과 지자체의 사업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총체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은 크게 창업교육사업, 경진대회, 사업화지원, 창업인프라구축지원, 기타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업교육사업은 중기청이 지원하는 대학생 창업교육, 일반인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대학원지원, 청소년 비즈쿨 등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원하는 하이서울창업스쿨 등도 창업과 관련된 지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창업선도대학, 예비기술자창업, 선도벤처연계형창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창업,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창업지원사업들이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용부도 창업과 창직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인턴 채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기업과 연계를 하여 6개월간 인턴근무를 지원하는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마인드를 고취하는 등 창업저변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선발하여 비즈쿨로 지정하고 체험중심의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 새싹기업 프로그램, 청소년 창업유망주 스프링캠프,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창업교재 보급, 경제 및 창업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 지원사업’은 대학 내 창업강좌 개설, 창업동아리 아이템 개발 지원 및 창업전담인력 인건비를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여 대학 내 청년창업분위기의 활성화를 꾀한다. 창업동아리의 사업계획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석·박사급 창업전문가 양성 및 정책개발을 위해, 2004년부터 주요 권역별로 호서대, 중앙대, 한밭대, 경남과기대, 예원예술대 등 5개의 ‘창업대학원’을 설립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기타 일반운영비 등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왔다. 중기청은 2014년에는 국민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 계명대 등 5개의 창업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10개의 창업대학원을 선정하여 창업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학에 창업프로그램과 창업지원사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성과와 실효성은 불분명하다. 각 부처별로 대학과 관련된 창업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부의 대학을 통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의 창업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크게 사람에 관련된 사항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사람에 관한 문제점들은 창업이라는 테마를 담당하는 창업전문가들이 대학에 포진하고 있는지와 이들 창업전문가들이 대학 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의 창업관련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과연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들의 창업 지원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학의 창업테마에 대한 이해 여부와 창업전문인력 부족

LINC 사업과 창업선도대학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특성화 사업과 창업관련 사업들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창업관련 지원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창업관련 실무와 연구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창업관련 전문가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창업관련 테마를 대학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최근의 추세에 맞게 대학이 창업관련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고 이들이 하여금 역할들을 창업관련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각 대학들이 창업관련 테마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는지와 관련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들이 학교 내에서 양호한 대우를 받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 질문에 대부분 네거티브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또한 과연 대학에서 창업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제대로 된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창업전문가들인가에 의문도 여전하다.

기존에도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하여 대학의 공간이 창업의 장으로 제공되고 대학의 교수 등 인력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경영 및 기술 자문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에서 창업의 산실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어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교수들로 임명되고, 창업보육 매니저는 저임금의 계약직 직원들로 임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선도대학 사업이나 LINC 사업 등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문가의 질에 의하여 사업의 성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부의 창업관련 사업들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창업에 대한 이해 부족도 큰 문제이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인력이 없이는 대학에서 창업관련 역할과 대학에서의 창업관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창업에 대한 대학의 이해와 수용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이 대학의 창업관련 사업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의 단기 계약의 산학협력중심 교원들이 대학에 들어온다고 대학 창업관련 성과가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 구상이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창업관련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진정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창업을 중·고등학교에 가르치는 비즈쿨사업 과정도 그 과정을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창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창업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창업이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어서 미국 등에서는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창업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창업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과 무관한 교수들이 일반적인 교과목을 가르치듯이 창업들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의 창업관련 경험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스펙 쌓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많은 창업관련 사업들에도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나 창업 성공을 경험한 전문가들의 교육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실은 창업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의 창업관련 사업에 창업전문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의 창업관련 전문가 활용시장에서 창업관련 전문인력의 미스매치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창업교육을 리딩하거나 창업관련 사업들을 리딩할 전문가가 대학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창업관련 전문인력들이 대학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는 우수한 창업이나 기술관련 인큐베이팅 인력들이 대학 내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창업의 목표 지표 불명확과 단기성과의 문제점

정부는 대학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사업목표를 R&D 성과, 논문, 고용증가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지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도 그 성과를 사업자등록증 개설이나 인력고용 등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학의 평가 항목 중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찾대로 사용하듯이 대학의 창업관련 사업들도 고용인원이나 사업자등록증 숫자 등 가시적인 양적 성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창업은 다른 학문이나 분야와 달리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단기적으로 대학들이 정부지원 창업지원 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 숫자와 고용인원 숫자를 비교·경쟁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밖에 없다.

대학의 창업지원 효과나 창업교육의 효과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인 창업관련 연구자들이나 교육자들에 의하면 창업교육의 효과는 최소 5년이나 7년이 지나야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당해 연도에 지원한 지원성공을 당해 연도 말에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그 다음해에 창업성과 결과를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창업지원사업들의 성과 측정 방법으로 적합한지를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마크 주커버그가 미국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그는 창업한 첫해 또는 다음해에 사업성과부진으로 낙인찍히고 말았을 것이다.

창업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창업아이템을 꿈꾸고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들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걸음씩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정부가 대학에 창업관련 지원을 하고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창업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것은 계란 또는 병아리로 하여금 왜 당장에 알을 낳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창업관련 사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지원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창업이 가능한 준비된 잠재적 창업가의 부족

창업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우수한 인력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시장에 진입을 꿈꾸고 있

특집 | 대학창업지원 어떻게 가야 하나?

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지금 창업을 꿈꾸고 있을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어린 시절부터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많은 젊은이들이 입학할 꿈꾸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성공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첫 학기부터 창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전 창업을 하게 해서 언론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여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학의 최고 인력들이 창업을 꿈꾸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크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로 꿈꾸고 대학생 시절의 상당부분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에서 과연 창업을 강조하고 창업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미약하고 최고의 인력들이 창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들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과 함께 병행되어야 창업에 대한 노력과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및 창업가정신 함양과 창업교육 미흡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이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성화된 창업교육이 많지 않고 무엇보다도 취업에 몰입된 인력에게 창업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들이 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창업교육들도 대부분 교수들이 진행하거나 대기업 경험을 가진 창업비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교육과정들이어서 창업교육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들이 있다. 제대로 준비된 창업강사나 창업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교육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창업에 대한 교육이전에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을 대학생 이전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본인의 창업아이템을 실행할 방안들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야 대학이 창업의 산실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의 창업은 거의 생각한 적이 없고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도전하라고 하고 창업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웬지 어색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이나 대학의 창업지원시스템을 고민할 때에 이 부분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와 창업

대학에는 수많은 박사급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교수와 연구원들에 창조경제의 틀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R&D 과제들의 평가가 국제학술논문 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지원 R&D 사업이 대부분 성공으로 평가되지만 성공으로 평가된 R&D 사업의 결과물들이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경우는 많지 않다.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에서도 성공으로 평가된 창업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창업

마인드가 약하고 사업화 마인드가 매우 약하다. 따라서 교수들이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기술관련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 한때 1990년대 후반에 교수와 연구원들의 창업이 붐을 이루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들이 벤처사업 등에서 대부분 실패하여 지금은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의 창업은 묵시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스스로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나 연구원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학이 최고의 기술의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면 최고의 기술들이 대학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들의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상용화하는 전문가들이나 전문기관들이 대학 내부에 있거나 대학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수들의 R&D연구 성과물들이 신속하게 상용화되고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들 대학의 교수들에게 연구를 위탁하고 연구성과물들을 활용하고 있고, 대학은 이들의 연구성과물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연구성과물들이 교수나 연구원들의 창업아이템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무엇이 문제일까? 최고의 연구성과물들이 양산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일까?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교수들이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충분히 주지 못해서 상용화나 사업화에 적합한 좋은 연구성과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들에 대한 창업지원사업들을 창업이나 사업화와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한 국가의 미래는 의사나 변호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혁신가들과 기업가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나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미래가 밝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밝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업이나 사업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이다. 성장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기업가 정신이 침체되면 도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 나라가 쇠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혁신형창업, 기술창업, 벤처창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된다. 율곡 이이선생은 1500년대에 10만대군 양병설을 주장하였듯이, 필자는 혁신창업 인력 10만명을 대학에서 양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업은 그 사회의 최고의 인력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고의 인력들은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곳으로 몰리고 있고,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 창업성공의 롤 모델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몇몇 쇼핑몰, 게임 업체 등등을 제외하고는 성공모델이 많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무관심하거나 창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에는 수백대

특집 | 대학창업지원 어떻게 가야 하나?

일의 경쟁률이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시대이다. 창업과 동시에 또는 창업 이후에 몇 년 안에 글로벌 경쟁이 직면하고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수 있는 인재들에 의한 창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창업할 때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차입자금이나 자기자금으로 하게 되어 실패하면 실패한 개인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구조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대부분은 국어, 영어, 수학 등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점수따기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한다. 대학에서는 학점을 좋게 따고, 어학 점수를 따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데 대학생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창업과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에 관해서는 아메바 수준이다. 거의 장애인 또는 무뇌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창업을 꿈꾸라고 창업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창업은 거의 전방위 전쟁과 같은 상황들을 맞이 하고 대응하고 이겨야 하는 전쟁터 같은 곳인데 훈련이나 연습 없이 어떻게 이기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최강의 군인을 훈련에 의하여 양성하듯이 창업도 조기교육과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양성하여야 한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대학들이 담당해야 한다. 창업대학원 같은 곳에서 최고의 창업컨설팅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미디어 정책과 드라마 정책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한다.

창업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 안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성과물들이나 영웅들은 그 전쟁터에 나왔다. 정부는 잔략적인 정책마련을 하고 세부적 전술적인 훈련을 시켜서 망하지 않게 하거나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워렌 버핏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 번의 창업을 경험하였고, 빌 게이츠도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과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돈을 번 적이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어필한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개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학생 때에는 창업을 실제로 연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벤처나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도록 하는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각 정권 차원의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정권을 뛰어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대학에서 창업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된 창업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필자소개

하규수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금융경제전공),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의 Touro 법과전문대학원에서 J.D.(Juris Doctor)를 취득하였고,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에서 LL.M.을 취득하였으며, 1998년부터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미국 연방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부터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2012년에는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부원장을, 2013년부터는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등재학회인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창업대학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기업가의 사업실패 스트레스와 사업의욕' 등의 논문이 있다. 관심분야는 창업, 벤처, 상거래법 등이다.